

민족혁명과 시민혁명: 타이와 미얀마*

박은홍**

I. 문제의 제기

타이와 버마에서 1932년과 1962년은 현재 양국 시민사회의 이념과 행동 방향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다. 1932년에 타이에서는 절대 군주체제를 입헌군주체제로 바꾼 군민 연합정변이 일어났다면, 1962년 버마에서는 세계자본주의체제와의 연결고리를 단절한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흥미로운 것은 타이에서는 2006년 쿠데타 이후 이른바 ‘엘로우셔츠’와 ‘레드셔츠’간의 민족화해(national reconciliation)가 큰 이슈로 부상하다가 이에 대한 기대감이 무산되면서 ‘레드셔츠’ 쪽에서는 타이정치체제가 1932년 이전으로 회귀하였다는 얘기가 회자되면서 중산층계급의 지지를 받는 군부-왕실-민주당 동맹과 기층계급의 지지를 받는 친탁신 정치사회세력간의 대립을 전근대 삭디나 시기의 관료 혹은 귀족을 뜻하는 ‘암맛’과 평민 혹은 농노를 뜻하는 ‘프라이’간의 대치로 비유하기도 하였다(박은홍 2013: 91; Somchai 2011: 1). 반면 타이와는 대조적으로 버마에서는 2011년 이후 진행되는 정치

* 이 글은 2013년 포스코청암재단 아시아인문사회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글의 본문에서는 역사적 접근을 취하는 만큼 미얀마라는 공식 국명 대신에 버마라는 기존 국명을 사용할 것임.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hpark@skhu.ac.kr

적 개방 속에서 한때 자력갱생(*autarky*)을 발전모델로 여겼던 군부와 민주화 투쟁을 이끈 시민혁명세력을 대표하는 아웅 산 수지의 민족 민주동맹(NLD)간의 민족화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

타이의 경우 근대적 의미의 민족 개념은 역설적이게도 서구 식민주의의 압박 속에서 주권을 지켜낸 왕실 주도로 형성되었다. 이른바 ‘관주도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가 추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몽군주에 의해 주도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갖는 제한성에 불만을 갖는 젊은 엘리트들의 반(反)절대왕정 입헌혁명이 있게 되고, 국왕의 지위는 법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1932년 타이에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난 반왕정 혁명에 비견될 수 있는 정변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그것은 프랑스혁명과 달리 대중운동에 기반하지 않은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전근대적 군주제를 폐기하고 인민들을 예속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는 점에서 체제전환(*regime change*)으로서의 혁명임에 틀림없었다. 이들이 관주도 민족주의를 추진한 라마 6세 왓치랏 국왕의 ‘민족, 종교, 국왕’ 삼위일체론 대신에 ‘민족, 종교, 인민’ 삼위일체론을 주창한 것도 이 정변의 혁명적 의의를 더해준다.

반면 버마가 식민화되기 이전 땡구 왕조와 쾰바웅 왕조에서는 준(準) 종교적 상징주의가 통치의 정당성을 만들어냈다. 버마의 고전적 정치-종교이론에 따를 것 같으면 군주는 인간 본래의 이기적 탐욕에 따른 갈등적 상황 속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Taylor 1998: 35). 그러나 영국 식민당국은 직접통치를 통해 이러한 이념에 기반 한 왕실을 폐지하고 버마를 인도의 부속주로 편입시켰다. 이로써 신왕(神王) 개념이 세속적 정부 개념으로 바뀌었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다. 새로운 식민통치자들은 불교 교리에 근거한 법, 규칙을 부정하였다(Silverstein 1998: 17-18).

그러기에 버마의 경우 식민지 경험이 없는 타이와 달리 반(反)식

민주의 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근대적 의미의 민족개념이 왕실과 무관했고, 민족종교로서의 불교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반영(反英) 반식민 민족혁명운동을 주도했던 ‘30인 동지’의 일원이었던 네 윈이 이끈 군부세력이 1962년에 공표한 불교와 사회주의의 융합을 겨냥한 ‘버마식 사회주의’(Burmese way to socialism)는 오랜 반식민 민족혁명과 영국의 지배분할정책의 부산물인 종족 간 내전에 대한 나쁜 기억을 배경으로 창안된 것이었다. 요컨대 타이에서 1932년이 근대적 의미의 민족이 탄생되는 민족혁명의 시발점에 해당한다면, 버마에서 1962년은 그 귀착점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타이와 버마에서의 타협 없는 정치적 대치를 민족혁명세력과 시민혁명세력간의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정치투쟁’(prolonged and inconclusive political struggle, Rustow 1970)으로 간주하면서, 타이에서는 1932년 반왕정 입헌혁명이 1957년 싸릿 쿠데타와 함께 국가민족주의를 토대로 하는 우파 민족혁명으로 일단락되면서 시민혁명의 도전을 받는 배경을, 버마에서는 1936년 학생들의 동맹휴업으로 본격화된 반영(反英) 민족혁명운동이 1962년 네 윈 일파의 쿠데타와 함께 국가민족주의를 토대로 하는 좌파 민족혁명으로 일단락되면서 타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민혁명의 도전을 받는 배경을 각각 비교사적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II. 서구 시민혁명과 동남아시아에서의 민족혁명

서구의 시민혁명¹⁾은 개인의 자주권에 기초한 반(反)절대왕정운동

1) 1789년 프랑스혁명이 일어나고 새롭게 구성된 국민의회는 프랑스 헌법의 기초가 될 원칙을 정하면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선포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모든 정치결사체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그 자연권의 내용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언된 권리들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이 따라붙었고, 법치에 따라야 한다는

으로 시작하여 근대적 의미의 민족의 탄생을 수반하는 자유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 혹은 시민민족주의(civil nationalism)를 거쳐 개인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보수민족주의(conservative nationalism) 혹은 국가 민족주의(state nationalism)으로 변형되었다가 다시 자유민족주의 혹은 시민민족주의로 회귀하였다.²⁾ 이때 자본주의는 인쇄술의 발달을 매개로 유럽에 지방어에 기초한 대중민족주의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앤더슨 1991: 174). 시민혁명 이전 군주제 하에서 왕권의 정통성은 백성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나왔다. 백성은 시민(citizens)이 아니고 신민(subjects)일 뿐이었다(앤더슨 1991: 37). 이들 신민은 시민혁명 이후 시민으로 승격되었지만, 유럽 제국의 식민지 현지인들은 시민혁명 이전 신민으로 간주되었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서구 열강이 자유민족주의와 국가민족주의 사이에서 진자추 운동을 하는 동안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로 표현되는 관주도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를 통해 이에 저항하는 식민지 민족주의(colonial nationalism)를 발흥시켰음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원래 관주도 민족주의는 민족과 왕조제국(dynastic empire)의 의도적 결합물로서 1820년대부터 유럽에서 급격히 확산된 대중민족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발달하였다. 선거, 당조직, 문화 행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럽의 대중민족주의가 미국이나 프

조건이 덧붙여졌다. 이렇게 선언에 드러난 자연권과 사회질서 사이의 양면성(ambivalence)은 혁명세력들 사이에 존재했던 깊은 이념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프리먼 2004: 44). 다시 말해 시민혁명 이념 내에서도 자유주의와 국가주의 사이의 긴장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 2) 자유민족주의는 유럽 자유주의의 고전적 형태로서 프랑스혁명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유럽에서의 민족주의란 자유주의 혹은 정반대인 비자유주의를 의미했다. 이를테면 1848년 혁명은 제한적 입헌정부에 대한 요구와 함께 민족독립과 통일을 요구하는 투쟁이었다. 반면 보수민족주의는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사회적 결속과 질서를 강조했다. 군부의 출현, 인종차별주의, 외국인혐오증(xenophobia) 등도 보수민족주의와 연관된 것이다(Heywood 1997: 112-113).

랑스 역사에서 모방한 것이라면, 관주도 민족주의는 제국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민족주의의 복장을 한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의 출현 과정에서 주변화 되거나 배제될 위협을 느낀 지배계층이 채택한 전략으로서 반동적이면서 보수적인 것이었다.³⁾ 서양에서는 프로이센(Prussian-Germany)이, 동양에서는 천황을 이용한 메이지 과두정치가들과 타이의 쥘라롱견왕과 와치라웃왕이 관주도 민족주의를 부흥시킨 대표적인 권력자들이었다. 특히 와치라웃 국왕은 국가가 통제하는 초등 의무교육, 국가가 조직한 선전, 역사의 공식적 재편찬, 진짜 군국주의라기보다는 과시를 위한 군국주의, 그리고 왕조와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부단한 확인 등 관주도 민족주의의 모든 정책수단을 썼다. 그러한 그의 행태는 스스로를 민족화시키는(self-nationalizing) 유럽 왕조들과 매우 유사했다(앤더슨 1991: 114-144). 그러나 버마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대부분은 식민지 경험을 하였고, 이때 식민지 민족주의로서의 반(反)본국(anti-metropolitan) 저항이 전개되었다(앤더슨 1991: 91).

19세기는 동남아시아에 제국의 경로를 밟기 시작한 서구 열강의 식민주의가 본격적으로 진출한 시기였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을 망라하는 주요 제국주의세력들이 동남아 지도에

3) 어네스트 겔너(Ernest Gellner)는 민족(nation)에 대한 근대주의적 해석을 처음 시도한 인물이며,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그것을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은 민족주의의 형성을 자본주의 발전, 산업화와 연결시켰다. 이들에게 종족성, 언어, 역사, 종교, 문화 같은 요소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또 민족이 민족주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에 의해 민족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강철구 2004: 54). 흔히 민족을 공동의 문화로 인해 서로 엮여 있고, 상호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는 인간집단이고, 그 형성 요소로서 공통의 언어, 공통의 역사, 공통의 종교(쉬블리 2014: 65)를 거론하기도 하나, 이들에게 민족은 왕국이나 종교와 같은 과거 대(大)문화체계의 역할을 계승하여 새로이 탄생한 ‘상상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를 유발한 것이 인쇄자본주의(print capitalism)이다(앤더슨 2004). 인쇄기술의 발달이 공통의 언어, 공통의 역사, 공통의 종교를 만듦으로써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각자 고유의 색을 칠하였다. 왕국의 내분이나, 해적, 노예무역, 아편 밀매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리 문제, 기존 식민지에 대한 국지적 공격 혹은 천연자원, 토지, 광물 수탈 등이 개입의 빌미가 되었다. 샴(타이)만이 식민화에서 제외되었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곳도 많은 경제적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이는 제국주의 영국과 프랑스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주권은 유지되어도 경제적으로는 자율성이 취약한 반(半)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다(끼다하라 1983: 212).⁴⁾

반면 버마의 쁘바웅 왕조는 세 번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1885년 11월에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1886년 1월 영국령으로 선언되었다. 당초 인도 총독 더플린은 쁘바웅왕조의 티보왕을 폐위시킨 후 다른 왕자를 내세워 버마를 보호령으로 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포기하고 1886년 3월 버마 전역을 영령(英領) 인도의 한 부분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1890년 영국은 모든 저항조직을 섬멸하고 버마를 영국의 완벽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당시 서구 열강에게 식민주의는 국가적 사업이었다. 식민지 정책은 의회와 본국 언론의 화제가 되었다. 동남아인들은 이러한 외국인 지배에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전통적 방법에서 시작하여 점차 자신들의 언론과 문학을 매개로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단순히 가족, 마을 또는 종족집단이 아닌 영토적으로 규정된 국가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식민지 지배의 성립 근거에 도전한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식민주의 그 자체의 산물이었다(하이듀즈 2012: 157). 이때 지식인 계층은 식민지 민족주의 발생의 중심에 있었다(앤더슨 1991: 144).

4) 타이 근대사의 시작은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인 1855년 영국과 맺은 보우링 통상우호 조약에서 비롯된다. 이후 일본(1898년), 제정 러시아(1899년)를 포함해 대부분의 서구 열강과 반(半)강제적 통상조약을 맺음으로써 타이는 자유무역권과 관세자주권을 상실하였다(끼다하라 1983: 212).

<표1> 민족주의의 이념과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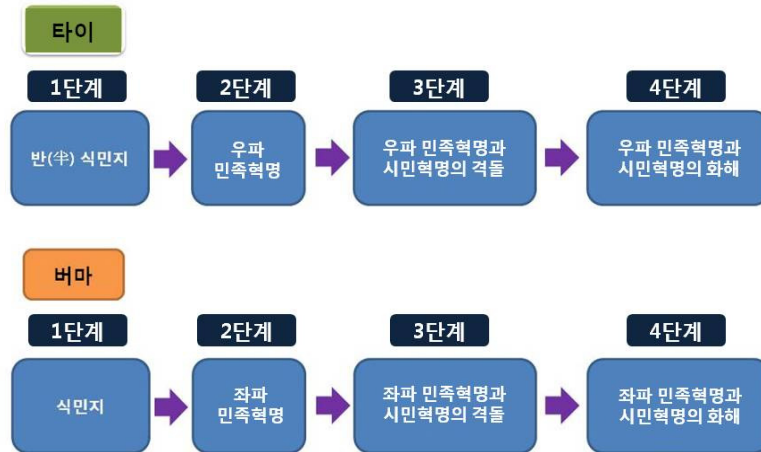
		민족주의의 주체	
		관주도민족주의	대중민족주의
민족주의의 이념	국가민족주의	a	b
	자유민족주의	c	d

위의 표에서 보자면 근대 민족의 탄생과정으로서의 서구의 시민혁명은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주체로서의 대중의 결합인 d에 해당한다. 유럽 시민혁명의 반동국면은 d에서 a로의 역진(reversal)을 의미한다.⁵⁾ 이 논문은 타이의 경우 1932년 입헌혁명을 주도한 세력 내에서 국가민족주의세력과 자유민족주의 세력간의 힘겨루기, 즉 a와 c 사이를 오가다가 결국 a로 일단락되었음을, 버마의 경우 식민지 경험이 없는 타이와는 달리 아웅 산이 이끄는 식민지 민족주의세력이 대중민족주의에 기반하면서도 반서구, 반자본, 반다당제민주주의라는 국가민족주의, 즉 b에서 출발하여 독립 이후 d를 거쳐 a로 귀착되었음을 각각 보여줄 것이다. 1962년 국가민족주의와 관주도민족주의를 기저로 하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기치로 한 좌파민족혁명이 타이 우파민족혁명과 마찬가지로 a로 일단락되었다는 얘기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c의 예로서, 이 때의 관주도 민족주의는 자유민족주의가 대중민족주의로 발전하려는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1973년과 1992년에 반군부 민주화 시위를 통해 타이 사회가 자유주의를 수용할 수 있었지만 ‘민족, 종교, 국왕’ 삼위일체론이라는 관주도민족주의의 테두리 안에서의 제한된 체제변화였음을 의미한다.

5) 역진은 ‘시민혁명의 군사화’(militarization of civil revolution)와 연관이 높다. 프랑스의 보나파르트체제(Bonaparte regime), 영국의 크롬웰체제(Cromwell regime)가 이에 해당한다.

<그림 1> 타이와 버마에서의 민족혁명과 시민혁명



이 글은 타이의 경우 위 <그림 1>의 3단계에 해당하는 우파 민족혁명과 시민혁명의 충돌단계에 있다면, 버마는 3단계로부터 4단계로의 진입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것이다. 타이에서 우파 민족혁명에 시민혁명의 도전의 맹아는 1973년에 있었던 민주화 시위의 종결국면인 1976년에 있었다. 이때 ‘민족, 종교, 국왕’ 삼위일체론의 방어세력인 우파 민족혁명세력에 대한 도전이 있었지만 실패로 끝났다.⁶⁾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6년 9월 탁신체제를 무너뜨린 군부 쿠데타 이후 우파 민족혁명세력에 대한 도전이 다시 시작되었다.⁷⁾ 반면 버마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1988년 8월과 2007년 9월에 일어난 반군부 민주화 시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8월 좌파 민족혁명세력인 군부를 대표하는 테인

6) 1976년 10월 6월 집회를 갖고 있던 탐마삿 대학내 학생들에 대한 유혈진압이 바로 시민혁명의 맹아를 제거한 우파 민족혁명세력의 반격에 해당한 사건이었다. 이 사태에는 국왕 뿐만 아니라 왕세자, 왕비도 개입되어 있었다(김홍구 2010: 65).

7)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국왕모독죄 적용사례가 연 4-5회에 불과했는데, 쿠데타가 발발한 해인 2006년 이후 ‘레드셔츠’의 대대적인 저항이 있었던 2010년 5월까지 그 위반 사례가 400건으로 급증한 것을 들 수 있다.

세인 대통령과 시민혁명세력을 대표하는 아웅 산 수지간의 대타협이 이루어진 이후 버마는 4단계로의 진입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⁸⁾

요컨대 이 글이 보고자 하는 것은 타이의 우파 민족혁명과 버마의 좌파 민족혁명 공히 유럽 시민혁명의 토대가 되었던 자유민족주의가 아닌 국가민족주의로 귀결됨에 따라 시민혁명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 즉 민족혁명의 형성, 진화, 위기의 수순(sequence)이다.

방법론적으로 타이와 버마 2개국 사례연구가 지니는 가치는 러스토우(Dankwart Rustow)가 스웨덴과 터키 사례를 중심으로 발생론적 관점(genetic approach)에서 민주주의에 이르는 수순을 배경조건(background condition), 준비단계(preparatory phase), 결정단계(decision phase), 습관화단계(habituation phase)로 구분한 것으로부터 정당화된(Rustow 1970). 이때 그는 민주화의 배경조건으로 흔히 거론되는 사회경제적 지표가 아닌 민족통합을 모든 민주화 단계의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고, 만일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 시점(timing)이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또 민주주의 준비단계에서의 구호(banner)를 달리하는 세력 간의 지난한 투쟁(serious and prolonged nature of the struggle), 즉 양극화(polarization)와 공동체내 반목(hot family feud)을 민주주의에 합의하는 결정단계로 나아가는 특징(hallmark)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글은 타이, 버마 두 사례를 통해 민족통합이 자유민족주의에 기반한 민주화의 배경조건이 아닌,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정치투쟁’을 종식시키고 화해를 통해 민족통합에 이르게 하는, 다시 말해 결정단계, 습관화 단계를 거친 민주화야말로 민족통합의 배경조건임을 보여줄 것이다.⁹⁾

8) 대타협의 구체적 예는 2011년 11월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군부가 추진해온 ‘민주화 이행 로드맵’에 대한 불승인 전략을 수정한 것을 들 수 있다(박은홍 2013: 297). 그 성과의 가장 극적인 예는 2012년 4월 1일 보궐선거를 우려와는 달리 테인 세인 정부가 비교적 공정하게 치뤄지게 함으로써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압도적 승리를 한 것을 들 수 있다.

9) 이 때의 민주화란 계급적, 종족적, 지역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정치세력간의

이 글은 러스토우의 스웨덴, 터키 사례연구처럼, 타이, 버마 2개국 사례연구 역시 통제할 수 없는 지나치게 많은 변인들로 인해 결론을 기피하게 되는 사변주의(inconclusive scholasticism)와 두터운 사실 모으기에 급급한 단일국가연구(Monographistan) 사이의 중간노선 연구를 지향할 것이다(Rustow 1970: 25-35).

III. 우파 민족혁명과 좌파 민족혁명, 그리고 시민혁명

1. 타이에서의 우파 민족혁명과 시민혁명의 도전

서구에서의 절대군주체제는 봉건적 기득권세력과 그 속에서 새롭게 성장한 시민세력들간의 대립 상황에서 형성되었다. 절대군주체제는 상업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봉건적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양대세력의 대립과 견제를 이용하여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다.

반면 삼왕국을 기반으로 근대 개혁을 추진한 라마 5세 쫄라롱껐 왕은 유럽에서의 계몽군주와 같은 존재였다. 쫄라롱껐과 그의 지지세력들은 샴이 세계에서 비중 있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강한국가의 건설과 절대권력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쫄라롱껐은 근대화론자를 자처했다. 그는 그의 아들들과 조카들을 성 피터스버그, 런던 그리고 베를린에 있는 궁정에 보내 세계적 모형의 복잡 미묘함을 배우게 하였다(앤더슨 1991: 40).¹⁰⁾ 그가 추구한 모형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거민주주의의 안착으로부터 시작하여 과소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로서의 협의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까지를 포괄한다.

10) 쫄라롱껐은 법에 의한 장자계승을 필수원리로 제도화하여 샴이 다른 '문명화된' 유럽의 군주국들과 보조를 같이 하게 했다. 라마 6세로의 왕위계승 즉위식에는 영국, 러시아, 그리스, 덴마크, 일본에서 온 왕족들이 참석하였다(앤더슨 1991: 40).

은 영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네덜란드령 동인도, 영령 말레이시아, 그리고 라지(Raj)의 관료국가(beamtenstaaten)였다. 이 모형을 따르려는 것은 왕실정부를 합리화하고 중앙집권화하며,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을 뜻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예는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철로를 만들고, 운하를 파고, 상업농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쥘라롱건의 뒤를 이은 왓치라웃은 타이 역사에서 민족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이를 제도적, 공식적 차원으로 발전시킨 군주로 평가된다(조흥국 2007: 68). 관주도 민족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왓치라웃 국왕은 사회를 구성한 인간들은 상호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이고 어떠한 도전도 불가한 국왕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이론을 내세우면서 선친인 쥘라롱건왕이 권유한 헌정체제와 의회주의의 도입을 유럽에서는 득이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악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다(Baker and Pasuk 2008: 106).

또한 그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 왕실의 혈통 승계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일정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과 같다. 이때 국왕은 다른 신체 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뇌와 같은 존재이다. 이 같은 뇌수론의 관점에서 존왕주의와 민족주의는 동일하다. 국왕에 대한 충성이 민족에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국왕이 민족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평민들은 자기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는 더 이상 삼인이 아니다. 왓치라웃은 ‘민족, 종교, 국왕’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촉구했다. 여기에서 국왕은 불교 국가의 정치적 표상이자 민족과 종교의 수호자이다. 왓치라웃이 조직한 일종의 홍위병과 같은 ‘쓰어빠’(‘밀림의 호랑이’란 뜻)의 목표는 민족과 불교와 국왕을 지키고 국민의 단결을 고취하는 것이었다(조흥국 2007: 70). 사실상 왓치라웃의 이론은 왕권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근대적 어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계

몽군주의 연장선상에 있었다(Baker and Pasuk 2008: 107).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와 신문 시장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절대왕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새로이 부상한 언론인들은 왜 삼이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빈곤한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유가 소수 기득권자들이 인민을 착취하는, 즉 사회가 지배계급과 비피지배계급으로 확연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27년 2월 5일 파리에서 4명의 남자가 회동을 가졌다. 그 날로부터 5일에 걸쳐 이들은 삼혁명을 계획했다. 그 중에는 빨랙 피분송크람을 비롯한 군사학교 학생 3명, 법학도인 빠리디 파눔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카나랏싸던 즉, 인민당이라고 칭했다. 이들이 사용한 인민이란 단어는 당시 방콕 언론들이 통치자의 반대 개념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었다. 이 그룹의 지적 지도자는 27살의 영민한 법학도 빠리디 파눔용이었다. 그는 유학 기간 중에 유럽 사조를 받아들였고, 국왕의 지위를 헌법 아래 두는 것의 중요성을 간파하였다. 이들은 두 개의 목표를 채택했다. 하나는 절대왕정을 입헌군주정으로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방콕 언론들이 발전시킨 주제들로서, 사회경제 진보를 위해 국가를 활용하는 6대 강령, 즉 실질적 독립, 복지, 경제계획, 예외 없는 평등권 보장(왕족도 포함), 예외 없는 자유권 보장, 보통교육 등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후 유럽 유학을 경험한 7명이 더 가담하였다. 세계경제가 대공황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던 1929년 타이에서는 절대왕정에 대한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Baker and Pasuk 2008: 118).

1932년 6월 24일 소규모의 인민당 조직원들이 근위대 사령관과 40명에 이르는 왕족과 그 측근들을 체포하고 절대왕정이 전복되었음을 선언했다. 고조되고 있던 절대왕정에 대한 반감이 쿠데타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인민들이 인민당에 합류하였다. 사업가들과 노동

자들도 환영하였다. 지지선언이 지방으로부터도 쇄도하였다. 이 거사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무기력했다. 국제사회의 이목도 집중되었다. 미미한 수준의 총격사건이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혁명세력 내 민간세력을 대표하는 빠리디 파놈용은 경제민족주의, 사회정의, 인간애, 법치 등을 옹호하는 혁명 공약문을 배포했다. 여기에는 체제 전환을 의도한 혁명적 수준의 인들이 담겨있었다. 이 공약문은 법 위에 군림하던 국왕과 왕족의 특권을 거부하였다. 1932년 6월 27일 인민당은 헌법을 공포하였다. 최고의 권력이 인민에게 귀속되고 의회와 인민위원회에 의해 정부가 구성됨을 선언했다. 6월 24일 밤 왕과 그의 측근들이 인민당의 요구에 순응할지 저항할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무신들은 수도 외곽의 군 병력을 동원하여 방콕을 포위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왕은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조치들을 거부하고 인민당에 협력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왕당파들은 반격의 기회를 엿보았다. 이들은 혁명이 공산주의자들의 모함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또 외국 공관을 방문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왕당파에 속하는 경찰 총수는 인력거 일꾼들에게 돈을 주고 파업을 일으켜 방콕을 혼란으로 몰아넣으려고 하였다. 이렇듯 왕당파의 저항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국 국왕의 요구에 따라 영구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국왕이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70명으로 구성된 과도의회에 절대왕정 시기 25명의 고위급 관료가 포함되었고, 신정부에도 8명의 관료가 초대되었다. 이들은 추밀원 가운데 몇 안 되는 비(非)왕족 출신의 임원 중 한명인 프라야 마노 니티타를 수상으로 뽑았다. 1932년 12월 10일 영구헌법이 선포되었는데, 형식적으로는 국왕이 하사한 것으로 포장되었다. 영구헌법은 애초 헌법 초안보다 훨씬 더 국왕에 우호적이었으나 의회와 국무회의(state council)가 국왕의 특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Riggs 1967: 159).

그러기에 수면 아래에서는 이후 신-구질서간 끈질긴 공방전이 지속되었다. 갈등의 쟁점은 국왕의 헌법적 지위와 자산에 관한 것이었다. 방콕 언론들은 왕족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삼의 자본금을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정부가 왕족들과 귀족들의 토지를 박탈하여 이를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신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자산세와 상속세 관련 법률을 준비하였다. 빠리디는 '경제계획 초안'을 준비했는데, 그 핵심은 모든 토지를 자발적으로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초안은 왕족들을 놀라게 하였다. 국왕의 측근인 마노 수상은 빠리디의 계획이 타이 전통에 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거부할 것을 내각에 요구하고 이 법안을 다루게 될 의회에 위협 차원에서 군부대를 보냈다. 국왕과 정부 내에 참여하고 있던 그의 측근들은 입헌혁명세력과의 협력을 파기하였다. 빠라차띠뻑 국왕은 빠리디를 스탈린에 비유하는 에세이를 썼다. 결국 빠리디는 망명길에 올라야 했고 내각에서 빠리디 지지자들이 제거되었다. 반면 2명의 왕당파 장군들이 승진을 했고 인민당 소속 장교들은 각기 다른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반공법도 재빨리 통과되었다.

그러나 마노 수상의 승리는 단명으로 끝났다. 한 달 후인 1933년 6월 인민당내 청년 장교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마노정부를 전복하고 군부 내 여러 명의 왕당파들을 제거하였다. 이들은 보다 신중하게 다시 고위급 관료들을 신정부에 참여시켰다. 그리고 망명상태에 있던 빠리디를 불러들였다. 이에 왕당파들은 다시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외국의 개입을 유도하는 소문을 퍼뜨리며 반격에 나섰다. 그 해 10월 몇 개월 전 인민당에 의해 군에서 숙청을 당한 바 있는 일단의 왕당파 장교들이 버워라뎃공의 지휘 아래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국왕은 버워라뎃의 반란이 일어나자 남부로 피신했다. 국왕은 반란군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사면을 요청했다. 인민

당은 반란에 국왕이 관여하고 은밀하게 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믿었다. 오랜 협상 끝에 국왕은 귀경에 합의했으나 곧 신병 치료차 유럽으로 출국하였다. 그는 해외 체류 중 정부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 중에는 왕실자산국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로 이관시키고 국왕에 대한 상속세 과세, 국왕의 특권을 축소시키는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귀국 요청을 받았을 때 국왕의 법률안 거부권을 포함하여 국왕의 권한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의 대폭적인 헌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뿌라차띠뻑은 1935년 3월 유럽에 체류 중 퇴위를 선언하였다. 정부는 스위스에 체류 중이던 뿌라차띠뻑의 조카인 10살의 아난 마히돈 왕자를 합법적인 왕위 승계자로 결정하였다(Baker and Pasuk 2008: 121).

버워라렛의 반란이 패배로 끝나면서 구체제와 혁명세력간의 공개적인 투쟁은 종료되었다. 이제 인민당은 절대왕정 이후의 질서가 변화하는 사회의 열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 당시 인민당은 크게 민간세력과 군부세력으로 나뉘었다. 뿌리디 파놈용은 전자를, 피분은 후자를 대표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의 역할과 목표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였다. 뿌리디의 사고는 유럽 사회주의의 요소가 가미된 프랑스 자유주의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사조에서 보자면 국가의 역할은 각자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 사법제도, 경제지원, 교육보조제도 등이 필요했다. 뿌리디는 사업가, 노동계 지도자, 보다 자유로운 국가를 열망하는 정치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의 이념은 유럽 시민혁명의 이념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웠다. 반면 피분은 이와 대조적으로 국가를 교육과 법 집행, 문화사업 등을 통해 각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무로 하는 인민의사의 표상으로 인식하였다. 그의 사고는 국가민주주의에 가까웠다. 요컨대 입헌혁명세력 내에 자유주의와 국가주의가 공존하였음을 의

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대세력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 연대하였다(Baker and Pasuk 2008: 122).

피분의 경우 국가통합 차원에서 ‘랏타니움’, 즉 민족주의를 강조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피분정부는 국호를 샴에서 타이로 바꾸었다.¹¹⁾ 뿌리디도 민족과 헌법이 대중의 새로운 충성 대상이 되길 기대했다. 그는 라디오를 통해 민족을 사랑하고 헌법을 옹호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점에서 피분과 뿌리디 양자 모두 관주도 민족주의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혁명 방어전쟁 와중에 입지를 굳힌 피분이 이끄는 군부세력은 군국주의적 민족주의에 경도되었다. 그것은 국가 민족주의의 극단적 형태였다. 1934년 피분은 히틀러 청년조직과 유사한 ‘유와촌’을 창설하였다. 피분은 선거에서 반대세력들이 부활하자 의회를 거치지 않고 수상령에 의한 통치를 강행하였다. 1940년에 모든 의원을 선출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피분은 의원직 절반만을 선출직으로 하는 제도를 10년 더 연장하였다. 그리고 그 스스로 육군 원수직에 올랐다. 예전에 이 직위는 국왕에 의해 임명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영도자로 칭하도록 하였다. 신문들은 “우리 국가의 안보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다”라는 구호로 도배되었다. 피분은 가가호호 그의 사진이 걸려 있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무작위로 체포할 수 있는 비상사태령, 인쇄법 등 억압적 법률들을 통과시켰다. 피분은 ‘우리 민족이 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비평가들은 그의 행태가 못쓸리니와 같고, 그 자신을 대통령 혹은 심지어 국왕과 같은 존재로 격상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피분의 행동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자유민족주의에 기초하였던 시민혁명을 국가민족주의로 변형시킨 크롬웰과 보나

11) 피분정부의 국호 변경은 타이종족 혹은 타이종족과 연관이 있는 캄보디아, 버마 일부, 라오스 등의 영토를 통합하여 타이제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반영한 것이었다(차상호 2003: 70).

파르트와 같은 존재였다. 이 시기 자유타이운동을 벌인 빠리디는 피분의 노선에 반대했다.

1932년 혁명을 주도한 군부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 사이에 균열이 생기자 이들 양 정파는 왕실의 환심 사기 경합을 벌였고 이 와중에 왕당파의 지위도 서서히 복구되었다. 입헌혁명을 주도한 군부세력을 대표하는 피분도 어린 국왕 아난 마히돈의 의문사 이후 왕실 지위의 복원문제와 관련하여 왕실을 견제했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여 왕실과의 타협에 나섰다. 1947년 빠리디 일파를 축출하는 왕당파 쿠데타¹²⁾에 피분이 참여한 것, 그리고 이 쿠데타로 상원을 선출하도록 했던 1946년 헌법을 폐기하고 상원을 국왕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왕당파의 일부는 민주당을 창당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였다. 마침내 1957년 쿠데타로 집권한 짜릿 군부세력은 기존의 ‘민족, 종교, 국왕’ 삼위일체론과 민족과 불교의 수호자로서의 국왕의 지위를 성역화 함으로써 과거 아유타야 왕조시대의 ‘테와라차’, 즉 신왕(神王)개념을 부활시켰다. 짜릿은 1949년 2월 빠리디가 이끈 자유타이파와 이들을 지지하는 해군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장본인이었다. 그는 그로부터 1년 4개월 뒤인 1951년 6월에 일어난 해군 반란을 소탕하는데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차상호 2003: 151-152).

짜릿은 이른바 타이 맥락에 맞고 서구문화에 기반 하지 않는 전통적 권위를 정치와 문화의 기초로 삼았다. ‘타이식 민주주의’가 제창됨과 동시에 서구적 가치를 거부한다는 명분하에 정치적으로는 의회주의와 선거민주주의가 부정되었고, 문화적으로는 로큰롤과 같은 미국 대중음악이 금지곡이 되었다. 반면 전통적 권위를 상징하는 국왕의 해외순방을 적극 주선하였고, 왕실의 전통의례를 부활시켰으

12) 1947년 빠리디 축출 쿠데타로 피분은 다시 권력을 얻게 되었지만 육군을 대표하는 짜릿, 경찰을 대표하는 파오와 권력을 공유해야 했다.

며, 국왕과 왕비의 생일을 각각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로 정했다. 푸미폰 국왕도 짜릿과 그의 측근 군부 엘리트들의 지지에 부응하면서 사회복지사업, 농촌개발사업, 교육사업에 적극 관여하였다.¹³⁾ 푸미폰 국왕 스스로 불법(佛法)에 따라 통치하는 전통적인 ‘탐마라차’의 카리스마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인 것이다(박은홍 2001: 168-170).

이로써 1932년 입헌혁명은 군부-왕실 동맹을 토대로 ‘민족, 종교, 국왕’ 삼위일체론으로 상징되는 국가민족주의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관주도 민족주의 중심에 군부와 같이 서있던 푸미폰 국왕은 1957년 쿠데타로 우파 민족혁명이 종결된 이후 군부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무조건적으로 군부의 정치노선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그의 지혜로움은 1973년 10월 학생들이 주도한 민주항쟁 때 군부 출신의 수상과 그 측근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민간정부 수립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학생 지도자들과 대중운동 지도자들이 ‘민족, 종교, 국왕’ 삼위일체론에 도전하는 양상을 띠자 왕실은 군과 경찰, 그리고 극우 민병대 조직의 폭력진압을 묵인하였다. 특히 1975년 4월 라오스 공산주의자들이 군주제를 폐지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타이 왕실과 왕당파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고, 나아가 반(反)민주주의세력이 결집하였다. 1976년 10월 6일 탐마삿 대학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학생들에 대한 유혈진압에 따른 참사를 지칭하는 이른바 ‘혹뿔라’는 타이 우파민족혁명세력의 시민혁명의 맹아에 대한 초동 대응이었다. 이는 타이 왕실이 이른바 민주화가 국가민족주의에서 자유민족주의로 나아가더라도 자유주의의 수위를 조절하는 기제인 관주도 민족주의를 넘어서려는

13) 이 시기 푸미폰 국왕은 왕실의료단, 인공수족작업장, 의료서비스지원기구, 농업연구개발센터, 직업훈련센터, 왕실장학재단 등을 설립하고 고산족 지원을 위한 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김홍구 1996: 175-176).

시도에 대해서는 군의 물리력을 빌려 이를 차단한다는 것을 보여준 예였다. 주목할 것은 이때도 자유민주주의세력은 삼위일체론 국가이데올로기를 넘어설 수 있는 만큼의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군부-왕실 우파 민족혁명 동맹세력은 탁신 친나왓이라는 신흥 대자본가 출신의 권력자가 포퓰리즘 정책을 매개로 지방 농민들의 정치의식을 일깨우고 ‘민족, 종교, 국왕’ 삼위일체론을 넘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단초를 조직하자 2006년 9월 19일 왕실 수호라는 명분을 내건 쿠데타로 대응하였다. 이후 타이 사회는 쿠데타를 지지하는 왕당파의 지휘하에 있는 ‘옐로우셔츠’와 쿠데타를 반대하는 친탁신세력의 지휘하에 있는 ‘레드셔츠’로 양분되었다. 특히 일부 레드셔츠 진영은 2010년 4월과 5월에 있었던 왕당파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민주당에 대한 자신들의 투쟁을 2006년 쿠데타 이후 1932년 입헌혁명 이전의 정치적 상황으로의 회귀를 막고자 하는 대중적 저항으로 인식하였다(박은홍 2013: 91). 이는 탄탄한 대중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관주도 민족주의에 저항하였던 1976년 10월과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이다.

반면 옐로우셔츠는 2006년 쿠데타를 반대하는 레드셔츠가 지지하는 친탁신세력이 2007년, 2011년 총선에서 계속 승리하자 선거 보이콧 투쟁과 함께 선거로 선출된 친탁신 권력에 대한 불인정 투쟁에 나섰다. 선거민주주의야말로 ‘전쟁의 정치’를 막고 정치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정치제도라는데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정치영역에서의 탁신세력의 제거 없이는 선거에 불응하겠다는, 이른바 ‘선(先)개혁, 후(後) 선거’ 논리는 내전을 불사하고라도 주로 저소득 계층과 북부, 동북부지역의 유권자들로 조직된 레드셔츠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겠다는 우파 민족혁명세력의 정치적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옐로우셔츠가 2006년 쿠데타와 2015년 쿠데타를 지지

하는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 있다. 반면 쿠데타를 반대하면서 선거 실시와 국왕모독죄의 남용을 비판하고 있는 레드셔츠는 자유민족주의와 대중민족주의에 기반한 시민혁명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결국 2010년 4-5월 이후 옐로우셔츠와 레드셔츠간의 대치양상은 국가민족주의로의 회귀가 있더라도 ‘민족, 종교, 국왕’이라는 관주도 민족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우파 민족혁명세력과 대중민족주의를 통해 이를 돌파하여 자유민족주의를 뿌리내리겠다는 시민혁명세력간의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정치투쟁’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6년 9월 쿠데타 이후 7년 8개월 만에 다시 발발한 2015년 5월 쿠데타는 타이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지난한 정치투쟁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 버마에서의 좌파 민족혁명과 시민혁명의 도전

버마는 1824-26년 사이에 있었던 제1차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양다보(Yandabo) 협정을 통해 아삼과 아라칸, 그리고 테나세림을 영국에 할양해야 했다. 이어 랑군에서 영국의 상선과 선원들이 버마인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구실로 1852-53년에 일어난 제2차 영국과의 전쟁에서 하부버마인 폐구를 병합당했다. 이어 영국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와 협력하려 한 티보왕의 자주외교에 두려움을 느낀 영국은 1886년 전 버마영토를 식민지화하고 버마를 인도의 한 주로 편입시켜버렸다(양길현 1996, 184). 19세기 이전까지 버마는 인도와의 접촉이 그리 많지 않았고 문화적 차이 역시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령 인도에 통합됨으로써 인도로부터의 무제한 이주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버마인들의 민족주의 운동은 영국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인도인 무역상과 인도인 행정관들에 대한 저항도 포함하고 있었다(염운옥 2007: 48).

우선 영국의 직접지배로 불교가 쇠퇴했다. 군주제를 폐지한 영국의 식민지배는 샤프란 색상의 가사를 착용한 자만이 진정한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그 어떤 조직체도 인정하지 않았다(하이듀즈 2012: 106). 이를테면 불교학교는 사전에 정부가 정한 교과목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영국 식민정부의 불교탄압이 불교부흥을 가져왔다(Esterline and Esterline 1991: 283). 1906년 기독교청년회를 모델로 하여 불교청년회(YMBA)가 결성되었다. 이어 불교총연합회, 버마연구협회 등과 같은 문화단체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민족종교와 문화적 자존심을 촉구하였는데 이는 보다 더 능동적인 민족주의자, 특히 자유로운 영국내 대학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훈련을 받고 돌아왔지만 정부관리로 채용되지 않은 다수 젊은 변호사들의 호응을 받았다. 1917년과 1918년에 불교청년회(YMBA)는 영국이 인도에게 자치정부를 허용한 것처럼 버마에도 자치를 허용토록 요구하였지만 성과가 없자 더욱 노골적인 민족운동단체와 제휴하여 1920년에 버마총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버마족(Burman)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족들이 포괄되었다.

1930년대에 랑군대 학생들이 도바마 아시아용(‘우리버마협회’라는 뜻)을 조직하고 근대 독립적 독립국가 버마로 나아가기 위한 청년 타킨운동을 벌였다. 이 때의 타킨이란 주인이란 뜻으로, 이른바 이들 타킨그룹은 버마인들이 영국 식민정부에 도전하려면 빈틈없이 준비하고 훈련하고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크리스티 2005:123). 아웅산은 타킨 지도자가 되었다. 요컨대 이들 대중조직들은 ‘민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축이 되었다(염운옥 2007: 48).

1880년에 랑군대학이 세워져 1920년 12월 20일 랑군대학교가 되었다. 인도의 대학교들이 급속히 민족주의의 온상이 된 이래, 영국 식민정부는 비슷한 현상이 버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여 새

로이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랑군대학 통제에 나서자 이 대학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다. 민족주의운동 지도자들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에 민족학교를 설립하였다. 모든 불교청년회(YMBA) 학교는 민족학교가 되었다. 특히 랑군대학교는 학생 민족주의운동의 요람이 되었다. 이들은 서구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을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폭발적전의 순수한 그룹이었다. 우리버마협회, 즉 타킨그룹도 그 대표적인 조직으로서 본격적으로 대중민족주의 발흥의 단초가 되는 1936년 2월 시위를 주동, 고등학교로까지 파져나가 전국 학교들이 수 개월간 휴교를 하도록 하였다. 1935년 버마법으로 인도로부터 분리되고 1937년부터 독자적인 식민지 의회가 설치되어 자치가 시행되었으나 타킨그룹은 자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였다. 이 조직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30인 동지'를 조직하였고, 이들 중 아웅 산은 버마가 일본 치하에 있었을 때 비밀리에 일본에 저항하기 위한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AFPFL)을 조직하였다. 이 조직은 아웅 산이 조직한 버마국민군의 기반이 되었다. 1945년 3월 버마국민군은 일본군에 대항하여 저항을 개시하였다(크리스티 2005: 176).

반파시스트인민자유연맹(이하 AFPFL)은 명실상부한 대중민족주의 운동조직이었다. AFPFL은 다양한 정치집단을 포용했고 전국적 규모였으며 버마국민군과 같은 군사조직도 갖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AFPFL은 일본의 패배와 함께 재지배를 피한 영국에게 위협적 존재가 되었다. 결국 버마의 독립문제는 영국과 아웅 산이 이끄는 AFPFL 양자 간의 협상의 성공여부에 달리게 되었다(크리스티 2005: 250). 1946-47년에 걸친 정치적 논쟁에서 아웅 산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 모두가 단결하여 맞설 것을 역설하였다(Callahan 1998: 65). 1947년 1월 영국과 아웅 산 측은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즉각 실시하고, 영국인 대표, 버마인, 소수종족 등이

모여 회합을 갖기로 하고, 아웅 산 내각을 과도정부로 승인하는데 합의하였다(Esterline and Esterline 1991: 290).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아웅 산과 그의 동료들의 서구민주주의에 대한 이중적 태도이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시점에 아웅 산은 버마 민주주의의 8가지 요소를 거론하였다. 생산수단의 국유화,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보험 보장, 인민의 관점에 토대한 사법제도 구축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1941년 그는 《버마의 청사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한 국가행정이다. 우리에게 단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당, 하나의 지도자가 있을 뿐이다. 의회 내 반대자와 개인주의란 낯선 것은 없을 것이다.” 이 당시 아웅 산은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자임을 부정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의 가장 핵심적 사안은 국가자산을 국유화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개인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서구 민주주의와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1930년대 아웅 산을 비롯한 청년들이 주도하였던 민족운동의 프로그램이 칼 마르크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조셉 스탈린, 조지 버나드 쇼우 등으로 영향을 받은 반제국주의, 유토피아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당시 이들 청년 민족주의자들에게 민주주의는 식민주의 제도, 제국주의와 동의어였다(Callahan 1998: 52-53). 요컨대 대중민족주의 운동을 이끈 아웅 산을 비롯한 버마 청년 엘리트들에게 서구 시민혁명의 토대가 되었던 자유민족주의는 위선 그 자체였고, 그 반발로 국가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레닌의 사회주의혁명이나 파시즘을 동경하였다. 하지만 1943-1945년 일본 지배시기에 자유민족주의의 싹이 다시 돋았다. 이 시기 문인, 언론인, 만화가 등이 찻집에 모여서 동시대 버마 문학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들은 파시즘에 대한 저항의식을 높이기 위해 일반대중들과의 접촉면을 넓혔다(아웅 모 조 2007: 267-268).

그러나 국가주의와 자유주의를 오간 아웅 산과 그의 동료들의 민

족주의 프로젝트는 이들이 뜻하지 않게 피난에 피살됨에 따라 위기를 맞았다. 그 결과 일본 후견하에 있던 바 모 정부에서 외무장관을 했고 제헌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던 우 누가 아웅 산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웅 산 사후 AFPFL은 분열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곧 무장투쟁을 시작했다. 대부분이 기독교도로서 수도와 멀지 않은 델타에 살고 있던 까렌족과 산악지대의 다른 소수민족들도 버마족-불교도가 이끄는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1948년까지 랑군은 고립되어 있다가 서서히 원래의 상태를 회복했다(하이듀즈 2012: 218). 1952년 건국헌법 하에서 첫 총선이 실시되었는데 AFPFL이 압승을 거두었다. 1953년 토지 국유화법에 따라 비경작 지주들로부터 토지가 몰수되었다. 인도인 대부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촌의 토지들이 버마 농민들에게 불하되었으며 많은 인도인들이 버마를 떠났다(하이듀즈 2012: 219).

전후 버마에서는 타이와 달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Esterline and Esterline 1991: 293). 타이 혁명의 주역인 쁘리디의 이념이 타이에서는 수용되지 못했지만 버마에서는 수용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자주독립 공화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타이의 쁘리디와 같은 젊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는 영국, 인도, 중국 자본주의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었다. 단지 자본, 기술, 통치력 부족이 문제였다. 국유화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50에이커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재분배된 토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전매하거나 팔 수 없도록 하였다. 1952년 빼이도다(Pyidawthar: Happy Land) 8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연방의 모든 국민이 안락한 생활을 향유하는 것과 매년 9%대의 GDP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했다(장준영 2012: 63-64).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으로부터의 경제, 기술 원조를 거부한 까닭으로 개발계획을 위한 정부재정의 기반은 취약하기 그

지없었다. 외부원조는 대부분 1954년에 시작된 일본전쟁배상금에 한정되었으며 1977년까지 미화 2억 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통치위기와 관련하여 영국의 지배하에서 정치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으며 버마족의 패권을 우려했던 많은 소수민족 집단들, 특히 버마의 남동부에 자리 잡은 까렌족들이 사회 주류에서 밀려났다. 그 결과 까렌족은 버마로부터의 독립 또는 최소한 상당한 정도의 자치가 가능한 정부구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의 분리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크리스티 2005: 250). 설상가상으로 1956년 선거에서 AFPFL이 다시 압승하였지만 곧 내분에 휩싸였다. 결국 우 누 수상이 사임을 하고 내전을 종식시킨 네 윈장군이 과도정부를 책임졌다. 그는 식민지 시기 아웅 산과 함께 ‘30인 동지’ 조직원이었고 사회주의이자 민족주의자이자 권위주의적 성향의 지도자였다. 요컨대 네 윈은 전형적인 국가민족주의자였다. 군부의 수장 네 윈의 부상은 1932년 입헌혁명 이후의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의 갈등 속에서 국가민족주의를 이끈 피분 군부일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배경과 유사했다. 반식민주의 투쟁과 분리주의운동 진압이 진행되자 군부 엘리트들은 학생, 노동자들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등 전형적인 국가민족주의 정책을 폈다. 이들은 중간관리급 행정직에 군장교를 투입하여 공공업무를 개선했고, 내각에 중도성향의 원로 판사, 학자, 관료, 기업인을 임명하고 자신들만을 의식하도록 하였다. 또 소수민족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버마족 중심주의’(Burman centrism)를 견지했다.

1962년 종족 간 갈등과 AFPFL 내 내분이 심화되는 가운데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건 네 윈 군부세력이 이끈 일단의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중국-소련식 명령형 경제와 유사한 사회주의경제체제 수립 계획을 공표하고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을 창당하였다(Myra Maung 1970: 539). 네 윈은 이 정당을 제

외한 모든 정당들을 해체시켰다.¹⁴⁾ 정부가 공산주의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정부는 점점 더 권위주의화 되어갔다. 교육자, 학생, 언론 그리고 소수민족들을 포함한 정치적 행동주의자들은 군부 독재를 거부했다. 1962년 6월 학생 시위대를 향해 군이 발포함에 따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1963년 시위가 재발하자 대학들이 1년간 폐쇄되었다. 1964년 다시 학교가 문을 열었지만 사회과학 전공 학생들의 정치활동이 통제를 받은 반면, 기술분야가 강조되었고, 해외유학은 동구로 보내어졌다. 교육수준은 계속해서 악화되었다(Esterline and Esterline 1991: 297). 혁명정부는 극단적 국가민족주의인 파시즘과 유사하게 지성주의를 혐오하였다.

‘버마식 사회주의’는 반자본주의체제로서 정부에 의한 생산통제를 상정한 이상주의이며 막연한 인도주의였다(Esterline and Esterline 1991: 297). 그것은 전형적으로 좌파 민족혁명이 선택하는 ‘자력갱생 모델’(autarky, Tin Maung Maung Than 2007: 113)이었다. 실제 1962-1965년 사이에 정통 마르크스주의 처방에 부합하는 명령형 경제체제로의 제도화가 추진되었다(Myra Maung 1970: 539). 당시 네 윈에게 절대적 지지를 표명한 두 세력이 있었는데, 공산주의 성향의 젊은 장교들로 구성된 군대와 민족연합전선(NUF)이었다. 중국식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민족연합전선(NUF)의 지도자인 바 네잉의 이념에 따라 자본주의가 사회전반에 걸쳐 폐기되고 농업이 공업보다 우선시되었다. 1965년 소작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것이 금지되었다(하이듀즈 2012: 251). 또 1963년과 1965년 사이 1천개가 넘는 민간기업이 국유화되었으며 인도와 중국기업들이 축출되었다. 경제의 버마화라는 기치하에 국유화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대대적으로 그러나

14) 네 윈은 마르크스보다 부처에게서 배울 것이 더 많다고 언급하고, 종교의 무용성보다 마르크스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공산주의세력을 배척한 우 누의 개인적 정치관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장준영 2012: 69).

무계획적으로 강행되었다.¹⁵⁾ 국내경제에서 외국인을 축출하는 국유화정책에 따라 1962년과 1967년 사이에 17만7천명 가량의 인도인과 파키스탄인이 도주하거나 축출되었다. 이렇듯 국가가 산업과 상업부문을 통제하게 되면서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팽창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업인, 상인, 기술자, 관리인들을 잃게 되었다(Esterline and Esterline 1991: 297-299). 주목할 것은 혁명정부가 농업부문의 개발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오히려 식량 생산량은 제2차 세계대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식량공급은 겨우 인구증가에 맞출 수 있었고, 1973년에는 버마 현대사상 처음으로 쌀을 수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쌀 수출 감소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가용외화를 축소시켰다. 쌀 생산 하락의 원인은 정부신용체제의 비효율성과 이완, 정부의 쌀 무역 독점 때문이었다. 경작자들은 대부금을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파종은 비효율적으로 되었으며, 생산은 그들이 필요한 만큼만 했고, 잉여물은 암시장에 팔거나 국가 매입가보다 3분의 1을 더 주는 반란군에게 팔았다. 또 국토의 반이 산림이기 때문에 목재, 특히 티크가 전통적으로 쌀 다음으로 제2의 수출품이었으나 정부 독점 결과 1974년 티크 수출량은 1940년 생산 수준의 3분의 2에, 그리고 광업과 석유생산량은 전쟁 전 수준 이하에 머물렀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이 광산과 유전을 파괴한 탓이기도 하지만, 국유화에 따른 설비, 자본, 관리 및 기술적 전문성의 결여와 정부의 외국원조수혜 거부 때문이었다. 1974년 버마의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에 그쳤는데 이것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적은 수치였다(Esterline and Esterline 1991: 298).

1974년 중엽 광범위한 시위가 나라를 흔들었다. 12월 랑군대학교

15) 급격한 국유화는 위기관리 정부시절(1958-1962) 네 윈의 오른팔이었던 아웅 지가 보다 급진적인 사회주의자 띵 페, 바 니옌에 밀려 혁명평의회에서 축출됨에 따라 추진되었다(양길현 2009: 61-62).

학생들은 전 유엔 사무총장이며 인도주의자로 알려진 우 탄트의 죽음으로 비롯된 상징적 기회를 활용하여 반정부 폭동을 일으켰다. 좌파 민족혁명세력의 국가민족주의세력에 대한 시민혁명세력의 도전이었다. 이러한 대중시위에 네 윈은 계엄령으로 맞섰으며 거의 2년 뒤인 1976년 9월 1일까지 계속된 결과 8천9백 명 가량이 구금되었고 3백 명이 투옥되었다. 그것은 1988년 시민혁명을 예고하는 자유민족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대중민족주의 운동이었다. 1975년 7월 물가양등과 실업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일어나자 정부는 그 다음 해 1월까지 대학들을 휴교 조치하고 물가통제에 나섰다. 그러나 3월에 가서 학생들이 다시 폭동을 일으키자 주동자들은 구속되었고 대학들은 다시 문을 닫았으며 한 학생 시위 배후 인물은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이들 학생들과 승려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저항은 1988년에 또다시 분출하였다. 학생들이 군사독재의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면 승려들은 승가조직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네 윈이 물러났지만 그 해 8월까지 수천 명이 수감되었다. 1988년 9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가 출범하였다. 뜻하지 않게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이하 SLORC)는 여당인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을 해산하고 다당제에 입각한 총선 실시를 약속하였다. 선거승리를 예측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군부의 오관이었다. 1990년 총선에서 아웅 산 장군의 딸 아웅 산 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것이다.¹⁶⁾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빨리 찾아온 좌파 민족혁명세력에 대한 시민혁명세력의 승리였다. 권력 이양 이후의 신변안전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 된 군부

16) 1990년 5월 총선에서 민족민주동맹(NLD)은 59.9%의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80.8%의 의석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집권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의 후신인 국민통합당(NUP)은 21.2%의 득표율에 훨씬 못 미치는 2.1%의 의석수를 얻는데 그쳤다.

엘리트들은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신헌법 기초를 책임지는 국민회의(NC)를 구성하였다. 시민혁명세력과 국제사회는 민족민주동맹(이하 NLD)으로의 권력이양을 촉구하였지만 SLORC은 이들의 요구를 일축하였다. 이때부터 군부와 시민혁명세력간의 비타협적인 대치상황이 재개되었다. 기나긴 정치투쟁이 계속되는 와중인 2003년 군부는 ‘규율민주주의로의 로드맵’¹⁷⁾이라는 정치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NLD를 포함한 시민혁명세력은 이 로드맵에 따른 정치 일정 참여를 전적으로 거부하였다. 군부도 NLD의 국민회의(NC) 참여를 원치 않았다.¹⁸⁾

2007년 승려들 중심의 대대적인 반군부 시위 이른바 ‘샤프론 혁명’이 일어났다.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유혈진압을 국제사회가 고강도로 비난했다. 서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마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아세안(ASEAN)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버마군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규율민주주의로의 로드맵’에 따라 2008년 5월에 신헌법을 통과시키고, 2010년 11월에는 총선을 실시하고, 2011년 2월에 의회를 구성하여 같은 해 3월에 군부 출신의 테인 세인을 수반으로 하는 신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2011년 8월 19일 좌파 민족혁명세력 버마 군부를 대표하는 테인 세인 대통령과 시민혁명세력을 대표하는 아웅 산 수지의 비공식 회동을 계기로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정치투쟁’이 종식되는 듯이 보이는 여러 정치적 개방 조치가

17) 로드맵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1996년 이래 중단된 국민회의(NC) 재소집. 2단계: 재소집된 국민회의(NC)에서 민주주의 수립을 위한 필요조치 강구. 3단계: 국민회의(NC)가 마련한 기본원칙에 따라 헌법초안 마련. 4단계: 헌법초안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5단계: 새로운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실시. 6단계: 국회 구성. 7단계: 현대적 민주국가 건설.

18) 로드맵을 공표한 킨 눈 장군은 종종 아시아 지도자들과 유엔특사 라잘리 이스마일(Razali Ismail)에게 민족화해 프로세스에 아웅 산 수지가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군부 최고실세 탄 쉐 장군은 그녀의 참여를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그는 신헌법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선거를 치른 다음에나 민족화해 프로세스에 그녀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Jagan 2006: 31).

취해졌다. 이에 NLD는 ‘규율민주주의로의 로드맵’에 대한 기존의 불참여전략을 폐기하고 정당등록 수순을 밟았다. 그리고 2012년 4월 1일 보궐선거 참여를 결정하였다. 선거는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공정하게 치루어졌고 NLD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보궐선거 이후에도 정치범 석방, 언론 자유화 확대 등과 같은 자유화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NLD와 국내외에서 NLD를 지지하는 세력들이야말로 버마의 정치적, 문화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온 버마 군부 엘리트들(Taylor 1998: 40)의 국가민족주의적 인식들 변화에 대한 의구심이 누그러졌다. 물론 NLD의 압승에 따른 선거혁명이 있었던 1990년 시점과는 달리 군부의 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2008년 헌법이 자신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군부에 대한 시민혁명세력의 화해의지가 어느 정도일지가 화해 프로세스의 지속여부를 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IV. 결론

1932년 입헌혁명 이전 타이에서는 절대군주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1932년 6월에 일어난 군민 연합정변은 국왕의 지위를 헌법 하에 두는 체제전환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관주도 민족주의로서의 ‘민족, 종교, 국왕’ 삼위일체론도 거부되었다. 이때 주목할 것은 1932년 혁명이념으로는 군부파의 국가민족주의와 문민파의 자유민족주의가 동거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유럽 시민혁명의 자유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이념을 수용한 뿌리디를 대표로 하는 문민파는 혁명 초기부터 국왕과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공산주의자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유는 뿌리디 일파가 토지의 국유화를 주요 경제개혁안으로 내걸면서 왕실 자산 축소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결국 왕당파

의 강경한 빠리디 배제전략이 지속되고 왕당파의 무장반란에 대한 진압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피분이 이끄는 군부파의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국가민족주의가 자유민족주의를 압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피분은 국호를 샴에서 타이로 바꾸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등 혁명 이전의 관주도 민족주의를 계승했다. 그리고 유럽과 일본에서 출몰한 과시즘을 모방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화인을 배제하는 국가민족주의 이념을 정책화하였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하자 그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되는 추축국을 지지하였다. 이때 혁명동지였던 빠리디가 연합국측을 지지하는 자유타이운동을 벌이게 됨에 따라 1932년 입헌혁명과 내 국가민족주의세력과 자유민족주의세력은 확연하게 적대적 관계로 변화하였다. 제2차 대전이 연합국측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자유타이운동을 벌인 빠리디 일파에게 유리한 정치환경이 조성되었으나 1946년 마히돈 국왕이 의문사하면서 왕당파의 의도대로 빠리디가 제거되고 군부-왕실 동맹체제가 뿌리를 내렸다. 특히 왕당파가 주축이 되어 창당된 민주당이 빠리디 제거를 목표로 한 1947년 쿠데타를 성공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1957년 사실상 1932년 입헌혁명 이전 신왕(神王) 개념을 부활시킨 싸릿 군부일파의 집권은 군부-왕실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국가민족주의와 관주도 민족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우파 민족혁명의 완성이었다. 이는 반식민지 대중민족주의 투쟁의 경험이 없는 타이 특수성의 귀결이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군주제가 폐지된 버마에서의 민족혁명의 형성과정은 식민지 경험을 한 제3세계 국가들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선 버마에서의 민족혁명운동의 시작은 제3세계에서처럼 식민지 민족주의의 발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서구 열강의 지배에 저항하던 식민지 민족주의가 그러했듯이 버마의 민족혁명세력 역시 반제국주의, 반서구, 반자본주의 양상을 띠면서, 오히려 외부로

는 제국주의화하면서 식민지 현지인을 서구 시민혁명 이전 신민(臣民)으로 대하던 자유민족주의의 위선에 분노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대중민족주의에 기반하여 불세비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국가민족주의를 수용하였다. 이는 타이의 민족혁명 형성과정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버마의 경우도 자유민족주의를 포용하는 민족혁명으로의 발전은 용이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독립 직후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지배분할정책의 후유증으로 벌어진 종족 간 내전 상황이 그러한 발전을 어렵게 하였다. 이때의 종족 간 갈등은 영국으로부터 차별을 받은 버만족과 그들로부터 우대를 받은 비(非)버만족 간의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이렇듯 민족통합을 가로막는 종족 간 내전 와중에 타이와 마찬가지로 군부의 입지가 커졌고 그만큼 자유민족주의가 아닌 국가민족주의의 도래 가능성이 높아졌다. 1962년 과거 반영(反英) 민족혁명운동의 일원이었던 네 윈이 이끄는 군부일파의 ‘버마식 사회주의’의 출범은 비버만족에 대한 버만족의 지배우위를 접하기 위한 관주도 민족주의와 국가민족주의가 결합한 좌파 민족혁명의 완성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타이와 버마에서 있었던 민족혁명의 경우 그 이념이 사회주의에 우호적이건 그렇지 않건 시민혁명세력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타이의 경우 자유민족주의자로서 국가민족주의 성향도 갖고 있었던 뿌리디 일파가, 버마의 경우 국가민족주의자로서 자유민족주의 성향도 갖고 있었던 아웅산 일파가 각각 제거됨으로써 민족혁명이 관주도-국가민족주의라는 매우 경직된 체제로 결빙된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경로는 시민혁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족혁명을 경험한 서구와는 달리 민족혁명 다음에 시민혁명을 경험한 제3세계 국가들의 보편성과 맞닿아 있다. 이때 서구 시민혁명의 경우 앙상레짐과 대결 속에서 혁명의 군사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 자유민족주의

와 대중민족주의에 기반하였던 시민혁명이 국가민족주의와 관주도 민족주의로 변형되었다면, 타이와 버마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민족혁명이 부닥치게 된 통합의 지난함이 혁명의 군사화로 이어지면서 공히 국가민족주의에 기반한 관주도 민족주의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타이의 경우 관주도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대중민족주의의 경험이 일천함에 따라 군부가 정치전면에서 물러나게 되는 민주화 이후에도 군부-왕실 동맹에 기반한 ‘민족, 종교, 국왕’ 삼위일체론을 고수하는 관주도 민족주의를 넘어서 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이러한 관주도 민족주의를 넘어서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러한 의지의 발현을 차단하는데 동참하였다. 다시 말해 타이에서의 민주화란 제한적 시민혁명의 산물이었으며, 대중민족주의에 기반한 전형적인 시민혁명은 없었다. 달리 말하자면 타이의 경우 대중민족주의에 기반한 시민혁명세력과 관주도 민족주의에 기반한 우파 민족혁명세력간에 치열한 정치투쟁이 탁신체제를 붕괴시킨 2006년 쿠데타 이전까지는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2006년 이후의 ‘엘로우-레드 갈등’은 우파 민족혁명세력과 시민혁명세력간의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정치투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5년 5월의 쿠데타 역시 양자간의 치열한 정치투쟁의 한 단면이다. 이때 주목할 것은 2006년 9월 쿠데타도 그러했지만, 2014년 5월 쿠데타 역시 군부-왕실-민주당 3자 동맹으로 이루어진 우파 민족혁명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버마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1974년, 1988년, 2007년에 전형적인 시민혁명을 경험했다. 민주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정치투쟁’의 산물로서의 화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 타이가 버마에 비해 민주화를 먼저 경험하였지만 국가민족주의와 관주도 민족주의에 기반한 민족혁명세력과 자유민

족주의와 대중민족주의에 기반한 시민혁명세력간의 치열한 정치투쟁 없는 타이 민주화의 불완전성이 2006년 쿠데타 이후 민주적 제도로서의 선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 버마는 민족혁명과 시민혁명간의 정치투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비록 민주화가 늦었지만 타이에 비해 민족혁명과 시민혁명간의 치열한 정치투쟁의 역사는 앞섰기 때문에 탈무장민주주의로서의 선거민주주의로의 진입 가능성과 습관화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버마에서 좌파 민족혁명세력과 시민혁명세력간의 지난한 정치투쟁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타이와 버마 두 사례는 진정한 민족통합은 민족혁명세력과 시민혁명세력간의 치열한 투쟁을 거친 양자간의 화해없이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민족혁명, 시민혁명, 관주도 민족주의, 대중민족주의, 국가민족주의, 자유민족주의

〈참고문헌〉

- 강철구. 2004. 『역사와 이데올로기』. 용과숲.
_____. 2009. “프랑스 혁명과 근대민족주의의 시작.” 『프레스리안』 5월 8일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58644>.
고 원. 2007. “시민혁명과 근대민주주의의 탄생.” 『민주주의 강의1-역사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홍구. 2010. “푸미폰 국왕의 정치개입 요인.” 『동남아연구』19(2).
끼다하라 아쓰시. 1983. “6장 타이.” 다끼가와 쓰도무 외. 『동남아시아 현대사 입문』. 나남.

- 젤너, 어네스트 최한우 역. 2009. 『민족과 민주주의』. 한반도국제대학 원대학교.
- 무어, 베링톤. 진덕규 역. 1990.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까치.
- 박은홍. 2001. “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1(2).
- 박은홍. 2013. “포스트-타신시대의 ‘붉은서츠’: 이념·조직·행동.” 『동남아시아연구』 23(1).
- 박은홍. 2013. “버마의 봄, 변화의 거대한 행보는 계속 될 것인가.” 『황해문화』(78).
- 슈타인버그, 데이비드. 2011. 장준영 역. 『버마/미얀마: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들』. 높이깊이.
- 쉬블리, 필립스. 윤진표 외 역. 2014. 『정치학개론: 권력과 선택』. 명인문화사.
- 아웅 모 조. 2007. “버마,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사회운동의 중요성.” 조희연·박은홍 편. 『동아시아와 한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앤더슨, 베네딕트. 윤형숙 역. 1991.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나남.
- 양길현. 1996. “미얀마의 정치변동과 리더십.” 김성주 외. 『동남아의 정치 리더십』. 21세기한국연구재단.
- 염운옥. 2007. “1920년대 버마의 민족운동과 정치참여.” 변은진 외. 『제국주의 시기 식민지인의 ‘정치참여’ 비교』. 선인.
- 오스본, 밀턴. 조홍국 역. 2000. 『한 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 오름.
- 장준영. 2012. 『미얀마의 정치경제와 개혁개방』. 지식과교양.
- 조홍국. 2007. 『태국-불교와 국왕의 나라』. 소나무.
- 차상호. 2003. 『태국 현대민주정치론』. 한국외국어대출판부.
- 크리스티, 클라이브. 노영순 역. 2005. 『20세기 동남아시아의 역사』. 심산.
- 프리먼, 마이클. 김철효 역. 2004. 『인권: 이론과 실천』. 아르케.
- 하이듀즈, 매리. 박장식·김동엽 역. 2012. 『동남아의 역사와 문화』. 솔과학.

- 홉스봄, 에릭. 강명세 역. 1998. 『1780년 이후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 Baker, Chris and Pasuk Phongpaichit. 2009. *A History of Thailand*(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llahan, Mary P. 1998. "On Time Warps and Warped Time: Lessons from Burma's Democratic Era." Robert I. Rotberg ed. *Burma: Prospects for a Democratic Era*.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Compton, Robert W. 2000. *East Asian Democratization: Impact of Globalization, Culture, and Economy*. London: Praeger.
- Esterline, John H. and Mae H. Esterline. 동남아시아지역연구회 역. 1991. 『동남아정치입문』. 박영사.
- Heywood, Andrew. 1997. *Politics*. London: Macmillan.
- Jagan, Larry. 2006. "Burma's Military: Purges and Coups Prevent Towards Democracy," Trevor Wilson ed. *Myanmar's Long Road to National Reconciliation*. Singapore: ISEAS.
- Mya Maung. "The Burmese Way to Socialism beyond the Welfare State," *Asian Survey* vol.10, no.6, 1970.
- Piyapat Bunnag. 2004. "The Proactive Cosmopolitan Foreign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Asian Review* vol.17, 2004.
- Riggs, Fred. 1966. *Thailand*.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 Rustow, Dankwart A. 1970. "Transtions to Democracy." *Comparative Politics*. vol.2, no.3.
- Sai Khaing Myo Tun. 2011. "Assessing the Context of Governance and Developmental State in Myanmar." Hirotsune Kimura et al. *Limits of Good Gover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 Yogyakarta: Gadjah Mada Univ. Press.
- Sakhong, Lian H. et al ed. 2002. *The New Panglong Initiative: Rebuilding the Union of Burma*. UNLD Press.
- Silverstein, Josef. "The Evolution and Saliency of Burma's National Political Culture," Robert I. Rotberg ed. *Burma*.
- Smith, Martin. 2006. "Ethnic Participation and National Reconciliation in Myanmar," Trevor Wilson ed. *Myanmar's Long Load to National Reconciliation*. Singapore: ISEAS.
- Somchai Phatharathannunth. 2011. "The Politics of Postpeasant Society: The Emergence of the Rural Red Shirts in Northeast Thailand." unpublished paper.
- Taylor, Robert H. 1998. "Political Values and Political Conflict in Burma." Robert I. Rotberg ed. *Burma*.
- Taylor, Robert H. ed. 2001. *Burma: Political Economy under Military Rule*. London: Hurst&Company.
- Tin Maung Maung Than. 2007. *State Dominance in Myanmar*. Singapore: ISEAS.
- Wyatt, David K. 1982. *Thailand: A Short History*. Michigan: Edwards Brothers, Inc.

(2014.04.22 투고, 2014.05.10 심사, 2014.05.20 게재확정)

<Abstract>

National Revolution vs. Civil Revolution: The Comparison between Thailand and Myanmar

Park, Eunhong
(Sungkonghoe University)

This article regards the phase of political confrontations in Thailand and Burma as a prolonged and inconclusive political struggle between national revolution forces and civil revolution forces. It argues that in Thai case, anti-monarchy constitutional revolution has led to a right-wing national revolution based on state nationalism consolidating capitalist economic system by Sarit's military coup, while in Burmese case, anti-British imperialism movement in colonial era has resulted in a left-wing national revolution grounded on state nationalism associating with socialist economic system by Ne Win's military coup.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two cases experienced state nationalism denying autonomous civil society as a process of nation-building in spite of their contrasting ideologies. In both cases, it became inevitable to have national revolution forces clinging to official nationalism and state nationalism confronting with civil revolution forces seeking popular nationalism and liberal nationalism. In particular, unlike Burmese society, Thai society, without colonial history has never experienced a civil war mobilizing anti-colonial popular nationalism including ethnic

revolt. This article considers Dankwart Rustow's argument that national unity as a background condition must precede all the other phases of democratization, but that otherwise its timing is irrelevant. In this context, Thai democratization without national unity which began earlier than Burmese is taking a backward step. For the time being, there would be no solution map to overcome severe political polarization between the right-wing national revolution forces defending official nationalism cum state nationalism and the civil revolution forces trying to go beyond official nationalism towards popular nationalism cum liberal nationalism. In contrast, paradoxically belated Burmese democratization has just taken a big leap in escaping from serious and inconclusive nature of political struggle between the left-wing national revolution forces to defend official nationalism cum state nationalism and civil revolution based on popular nationalism cum liberal nationalism towards a reconciliation phase in order to seek solutions for internal conflicts. The two case studies imply that national unity is not a background condition, but a consequence of the process of political polarization and reconciliation between national revolution forces and civil revolution forces.

Keywords: national revolution, civil revolution, official nationalism, popular nationalism, state nationalism, liberal nationalism

